

2) 향교의 구조와 운영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선현에 대한 제례와 지방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교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문묘와 교육을 위한 강당이 기본구조로 갖추어져야 한다.

신라 717년(성덕왕 16) 9월에 당에 갔던 대감 수충이 돌아오면서 공자·10철(哲)·72제자의 도상을 가져와 국학에 비치한 적이 있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공자묘당대사(孔子廟堂大舍)’라는 관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국학에서 석전제(釋奠祭)를 올렸으리라 짐작된다. 지방에 있는 소경의 학원과 주치소의 학교시설에서 공자의 도상을 두고 석전제를 올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시대에 문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조가 서경과 개경에 학교를 세우고, 983년(성종 2)에 박사 임노성이 송에서 돌아오면서 4도(대묘당도·사직당도·문선왕묘도·제기도)와 72현찬기를 가져왔으며, 989년에 대묘 등을 건립한 것으로 미루어 성종대에 유교적 의례가 갖추어지면서 국학에 문묘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지방의 향교에 문묘가 언제 갖추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성종대, 늦어도 인종대에 서울과 같은 문묘가 마련된 것이 아닐까 한다. 『고려사』 예지 ‘제주현문선왕묘(諸州縣文宣王廟)’에 문묘석전제에 관한 기록이 이를 말한다. 다만 국학과 향교는 건물의 규모와 봉사하는 선현의 수에 차이가 있다. 향교에는 공자를 위시한 5성 10철만 모신 것이 통례였던 듯싶다. 그밖에 1020년(현종 11)에는 최치원을, 1022년에는 설총을, 1319년(충숙왕 6)에는 안향을 각각 문묘에 종사케 하였는데, 지방의 문묘에도 이들을 종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묘에는 서울과 지방이 모두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제를 지냈다. 공자와 선현들의 도상을 그려 대성전의 벽에 걸어놓았고, 원 간섭기에는 불상처럼 소상(塑像)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방의 향교에도 영향을 미쳐 경상도 성주군 향교에 “소상은 개경의 대성전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고 한 것이 있다. 또한 고려 말 일부 향교에서는 위패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도상이나 소상이 위패로 바뀌어나간 것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1454년에 경상도 성주목 교수로 부임한 김숙자가 쓴 ‘할부자묘부(謁夫子廟賦)’에 따르면 대성 이하 4성 10철이 모두 흙으로 만든 소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향교에서는 도상과 위패, 소상 등이 병행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문묘제도의 정비에 따라 밤나무로 만든 위패로 대체되었다.

향교에는 강당인 명륜당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명륜당이 별도로 있지 않았다. 1346년(충목왕 2)에 쓴 이곡의 ‘형해부신작소학기(寧海府新作小學記)’에 “본국향교지제(本國鄉校之制) 묘학동궁(廟學同宮)”이라고 한 데서 보아 문묘와 강당이 한 건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묘와 강당이 한 건물에 있어 아이들이 들어와 대성전 뜰에서 떠들고 노는 형편이니 예에 어긋남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성전을 건립하고 좌우무(左右廡)를 별치하여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묘학이 분리되었다고는 하지만 명륜당이 따로 건립된 것은 아니었다. 명륜당이 건립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였다.

고려시대에는 문묘와 강당이 한 건물에 있어 제례가 교육에 부수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이 독립되고 아울러 선현을 봉안하는 동무, 서무가 건립되어 제례를 위한 문묘체제가 확립되었다. 공자를 주향하는 문묘를 독립시킨 것은 고려와 조선의 유학에 대한 태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적 기능에 부수되었던 제례적 기능이

더 커졌음을 말한다.

고려시대 향교 교관으로는 3경 12목에 경학박사·박사·사장 등을 파견하였고, 일반 군현에는 문과 출신의 지주사 및 현령에게 학교업무를 겸관하게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교관은 파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 군현에서는 지방관이 학생들을 공무 여가에 교육하거나 군현내의 학식자를 교관으로 임명하는 자치성을 보이고 있다. 『고려사』 예지의 제주현문선왕묘에 석전제를 거행하는 내용 가운데 문사·조교·교수 등의 학관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이 지방향교의 교육을 위하여 임명된 교관이다. 그러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중앙에서 교관이 파견되었다. 충선왕이 즉위하여 군현의 유능한 인재를 교도로 임명하였으며, 1389년에는 대사헌 조준의 상소로 5도에 교수관 1명씩을 파견하여 군현을 순행하면서 향교 교육을 독려하게 하였고, 지방에 한거하는 유사를 교도로 삼게 하였다. 고려 말에 중앙에서 교관을 파견하는 제도가 조선에 들어와 그대로 계승되었다.

향교의 학생을 생도·제생·제유·유생이라 불렀다. 인종 때에 식목도감에서 학식을 상정할 때 “8품 이하의 자와 서인으로 하고 7품 이상의 자도 원하는 사람은 입학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보면 향교에 입학할 자격은 하급관리의 자제와 지방에서 상당한 세력이 있는 향리 자제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러나 향교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입학의 자격도 넓어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양인 이상의 자제들도 입학할 수 있었다.

향교에서의 교육과정을 나타내주는 기록은 없다. 국자감의 과목인 『주역』·『창서』·『주례』·『희례』·『혜기』·『시경』·『춘추』·『효경』·『훈어』 등의 경서와 『탁어』·『철문』·『차림』 등의 책을 향교에서도 가르쳤을 것으로 짐작한다. 고려시대의 과거시험은 제술업·명경업·잡업으로 나누었다. 제술업은 시부송책(詩賦頌策) 등의 문학으로 시험하는 것이고, 명경업은 유교의 경전으로 시험하는 것이다. 모두 문신을 선발하는 시험이었으나 특히 제술업이 중시되었다. 고려시대 제술업 합격자가 6,000여 명이나 되는 데 비하여 명경업은 겨우 450명 정도인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응시자들은 제술 공부에 주력하였다.

1334년에 이곡이 쓴 김해향교수헌기(金海鄕校水軒記)에 학생들이 학사에 모여 각축부시(刻燭賦詩)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당시 향교 교육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고려시대의 사장·제술 중심의 학풍은 고려 말에 성리학의 영향으로 4서 5경의 강경을 중시하는 학풍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그리고 국자감에서 유학부와 잡학부로 나누어 교육한 것으로 미루어 유학을 중심으로 하되 율·서·산학·지리 같은 잡학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명법업·명산업·지리업 등 기술관 등용시험에 준비하고자 한 것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각 고을에 향교 이외에도 서재와 사숙(私塾)이 있었고, 사원도 과거 준비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향교가 지방관학의 중심이었고 지방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진주향교의 예이지만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이 많았다. 목종 때의 강민첨, 고려 말에 급제한 하즙·하윤원·하을지·정을보·하륜·정이오 등이 향교에서 공부한 인물들이다.

향교의 교육활동과 건물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향교전과 향교노비가 지급되었다. 1178년(명종 8) 4월에 서경의 여러 학원에 공해전 15결, 서적위전 50결, 문선왕 유향전 15결, 선성(기자) 유향전 50결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공민왕 때 강한 호족에게 빼앗긴 향교의 전토와 인구를 다시 되돌려받았다. 또한 수령이 지급한 곡식을 재원으로 식리를 하여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였다.